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8년 2월 19일

제08-06호

최근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ODA) 동향과 향후 전망

권 올 세계지역연구센터 국제개발협력팀 팀장 (ykwon@kiep.go.kr, Tel: 3460-1060)

정지선 세계지역연구센터 국제개발협력팀 연구원 (jsjeong@kiep.go.kr, Tel: 3460-1078)

주요 내용

- ▣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지난 12월 고위급 회의에서 2006년 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전년대비 4.5%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 대규모의 부채탕감에 대해 합의한 이후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던 DAC 회원국의 ODA 규모가 2006년 다소 감소하면서 1,044억 달러를 기록, GNI 대비 ODA 비율은 0.31% 수준임.
 - 그러나 DAC는 2010년에는 ODA 규모가 1,324억 달러로 확대되고 ODA/GNI 평균비율은 0.3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 ▣ 국별로는 최대 공여국인 미국의 경우 전년대비 18.2%가 감소한 23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이 그 뒤를 이음.

 - ODA/GNI 기준으로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만이 UN의 0.7% 목표를 달성함.
- ▣ 한국의 경우, 2006년 ODA 규모는 전년대비 약 40% 감소한 4억 5,525만 달러, ODA/GNI 비율은 0.05%를 기록하여 DAC 회원국 평균의 1/6 수준에 그침.

 - 2010년 OECD/DAC 가입을 위해서는 원조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최빈국 및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확대, 원조의 언타이드화 등 질적 제고 노력이 시급함.

1. 머리말

-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지난 2007년 12월 11~12일 고위급 회의에서 2006년 국제 ODA의 동향에 대한 통계 확정치를 발표함.
- 이 발표에 의하면, 2004년 11월 파리클럽 합의 이후 대규모 부채탕감의 시행으로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던 DAC 회원국의 ODA 규모가 2006년에 전년대비 4.5% 감소한 1,044억 달러를 기록함.
- ODA 총액에서 부채탕감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6~12%을 유지해 왔지만, 2005년 23.3%에 달하고 2006년에는 17.8%로 감소함(표 1 참고).
- 2005년 이라크와 나이지리아에 대한 집중적인 부채탕감에 이어 2006년에도 각 회원국들이 파리클럽 합의에 따라 이라크에 33억 달러, 나이지리아에 94억 달러 규모의 부채탕감을 추진함.
- 반면에 개발 프로젝트·프로그램을 위한 원조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차관 상환액이 처음으로 신규 지원액을 초과했기 때문임.

표 1. ODA 총액에서 차지하는 부채탕감 비중(1990~2006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990~91년 평균	1995~96년 평균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ODA총액(a)	54,574	57,277	58,297	69,065	79,432	107,099	104,421
양자간 원조(b)	34,419	36,394	39,818	50,888	57,246	83,453	79,450
부채탕감(c)	5,167	3,561	4,538	8,317	7,134	24,999	18,600
(비중, c/a)	9.5	6.2	7.8	12.0	9.0	23.3	17.8
(비중, c/b)	15.0	9.8	11.4	16.3	12.5	30.0	23.4

자료: OECD/DAC Internet Database.

- 2006년 ODA의 감소로 인하여, 2005년 G-8 회의와 새천년+5 정상회담(Millennium+5 Summit)에서 합의된 원조의 양적 확대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존재함.
- OECD/DAC는 2004년에서 2010년까지 전체 ODA 규모 중 500억 달러를 증액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2배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음.

- 그러나, 향후 수년간에 걸쳐 부채탕감 규모의 감소가 예측되므로 201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원조를 매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함.¹⁾
- 최근 국제사회의 원조 추세를 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 확대와 함께 원조의 질적 제고, 특히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언타이드 원조가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
- 2010년 DAC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국제적인 원조 추세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원조의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OECD/DAC 회원국과 우리나라 ODA의 동향을 비교·검토해보고 향후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 ODA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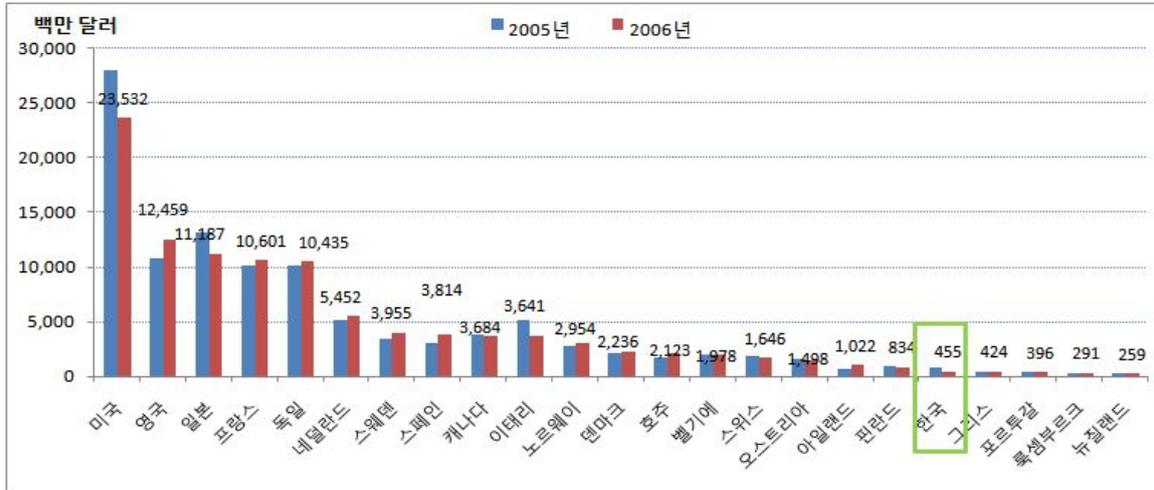
2. 최근 국제사회의 ODA 공여 현황

가. 양적 규모 비교

- 2000년대 들어 최대 공여국의 위치를 지켜온 미국은 2006년에도 역시 235억 달러로 1위의 자리를 유지하였고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이 그 뒤를 이음.
- 미국의 원조는 전년대비 18.2%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5년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 부채탕감에 따른 것으로 이미 예견되었던 것임.
- 2000년 이후 점진적으로 원조규모를 축소하여 온 일본은 2005년 이라크 부채탕감 및 쓰나미 지원으로 예외적으로 규모를 확대한 후, 2006년에는 다시 전년비 9.1% 감소한 112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ODA/GNI 비율은 0.25%를 기록함.

1) OECD/DAC(2007), "Final ODA Flows in 2006," DAC Senior Level Meeting Room Document.

그림 1. 2006년도 DAC 회원국 · 한국의 ODA(net) 공여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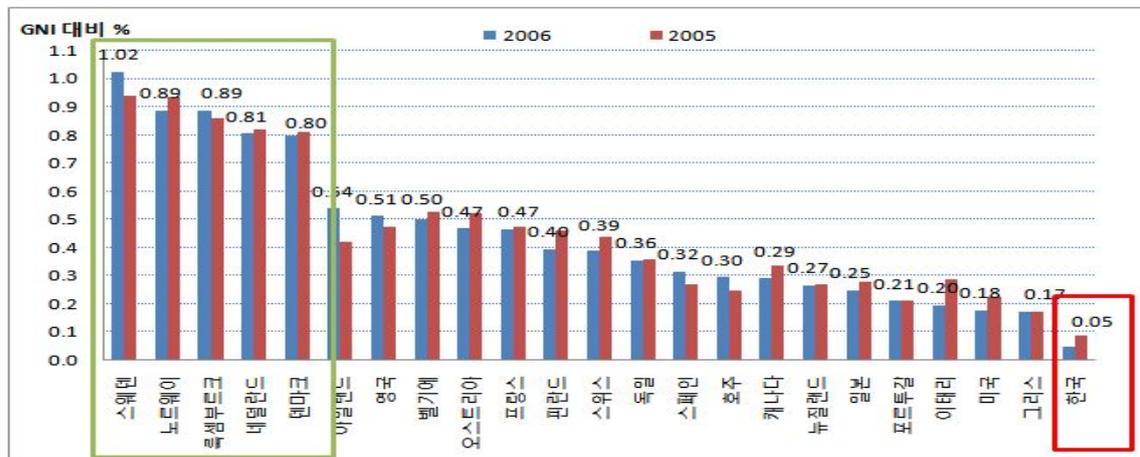
자료: OECD/DAC Internet Database.

- 양적 규모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ODA/GNI 비율에 있어서 DAC의 2015년 달성목표인 0.7%를 상회하는 회원국은 스웨덴(1.02%), 노르웨이(0.89%), 룩셈부르크(0.89%), 네덜란드(0.81%), 덴마크(0.80%) 등으로 모두 북유럽 국가들임.

- 2006년 최대 공여국인 미국의 경우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1포인트 증가한 0.18%로 그리스와 함께 최하위 그룹에 속하며, 일본은 2005년 0.19%에서 0.06%포인트가 증가한 0.25%를 기록함.

- DAC 비회원국인 한국은 원조규모상으로는 그리스, 포르투갈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ODA/GNI 기준으로는 최하위권인 미국(0.18%), 그리스(0.17%)에도 훨씬 못 미치는 0.05%로 DAC 회원국 평균인 0.31%의 1/6 수준에 그침.

그림 2. 2006년도 DAC회원국 · 한국의 ODA/GNI 비율 비교



자료: OECD/DAC Internet Database.

- 2002년의 몬테레이 국제 컨퍼런스(Monterre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를 전후로 DAC 회원국들은 2006년을 목표로 하는 원조규모 확대의 다양한 목표치를 공표한 바 있는데, EU 회원국의 경우 대부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2002년 당시 15개 EU 회원국들은 2006년까지 EU 전체의 ODA/GNI 비율 0.39%²⁾ 달성을 목표로 하였고,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³⁾을 제외한 11개 회원국이 목표를 달성함.
 - EU 전체 ODA/GNI 비율은 0.43%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이는 대규모의 부채탕감에 의한 것임.
 - 2002년 이후 일부 EU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0.39%보다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여 벨기에는 0.5% 달성, 스웨덴은 1% 초과 달성, 덴마크는 0.8%의 지속적인 유지를 달성함.
- 미국의 경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사하라 이남지역에 대한 대규모 부채탕감 프로그램과 원조 확대에 당초 설정한 2006년의 원조규모를 초과 달성하였지만, 일본은 예산부족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나. 질적 수준 비교

- 증여율(G.E.: Grant Element)⁴⁾은 ODA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2006년 DAC 회원국들의 증여율 평균은 97.6%이고, 22개 회원국 중에서 일본,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상원조를 공여하고 있어 증여율 100%를 기록함.
 - 유상자금협력의 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 89.6%를 기록하여 증여율 측면에서는 최하위임.
 - 최빈 개도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한 DAC 회원국의 평균 증여율은 99.6%로 프랑스(98.3%), 일본(97.9%), 스페인(97.1%)의 3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100% 무상원조를 시행하고 있음.

2) 이는 각 국가별 기준으로는 최소 0.33% ODA/GNI 비율을 의미함.

3) 스페인은 국가회계시스템이 최근 변경되어 목표치인 ODA/GNI 0.33%에 약간 못 미치는 0.32%를 기록함.

4) 증여율(G.E.)은 원조조건의 유연성과 원조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특정원조가 상업적 용자에 비해 개도국에 어느 정도 유리하게 되어 있는가를 나타냄. 대부의 이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의 함수로 표시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질이 우수한 원조라고 말할 수 있음.

- 증여비율⁵⁾ 및 지원조건 측면에서는 DAC 회원국 전체 ODA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06년 평균 89.4%임.
- 양자간 차관의 DAC 평균 증여율은 69.2%이고 평균 상환기간은 30.4년, 거치기간은 8.7년, 평균금리는 1.3%임.
- 상대적으로 차관비율이 높은 프랑스, 독일은 양자간 차관 증여율과 증여비율 모두에서 DAC 평균에 미달하며, 일본의 경우 양자간 차관의 증여율은 74.5%로 평균을 초과하나 증여비율은 54.1%로 최저 수준을 기록함.
- DAC 회원국의 양자간 원조 중 평균 언타이드 원조⁶⁾ 비율은 94.5%, 타이드 원조 비율은 5.4%를 기록함.
- 영국, 스웨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는 100% 언타이드 원조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리스, 포르투갈, 캐나다가, 이태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타이드 원조 비율을 보임.⁷⁾
- 많은 공여국이 자국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수출증대를 위해 타이드 원조를 전통적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침해하고 낮은 비용 대비 효율성⁸⁾ 및 투명성, 부패여지 등의 문제로 점차 국제사회 차원의 원조 언타이드화가 추진됨.
- DAC는 2001년 최빈국에 대한 원조의 언타이드화⁹⁾를 권고하였고 2005년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¹⁰⁾에서도 효과성 측정을 위한 12개 지표에 언타이드 관련 내용을 포함함.
 - ※ 파리선언 제2원칙인 수원국 개발전략과 공여국 원조정책의 일치(alignment)를 위한 평가 지표에 양자간 원조 언타이드 비율의 지속적 개선, 수원국 조달시스템 활용 등을 포함함.

5) ODA는 개도국에 상환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무상으로 공여하는 증여(grant)와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차관(loan)으로 크게 둘로 나뉘며 증여는 무상원조로, 차관은 유상원조로 각각 불리기도 함. 증여비율이란 전체 ODA 중 증여(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6)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 소수국가로 한정하는 경우를 타이드(tied) 원조라 하고,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를 언타이드(untied) 원조라 함.

7) 영국은 2001년, 덴마크는 2006년 자국 원조의 언타이드화를 선언하였으며, 아일랜드는 2001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100% 언타이드 원조를 수행함. 이번에 언타이드 원조 비율을 보고하지 않은 호주도 2006년 원조 언타이드화를 선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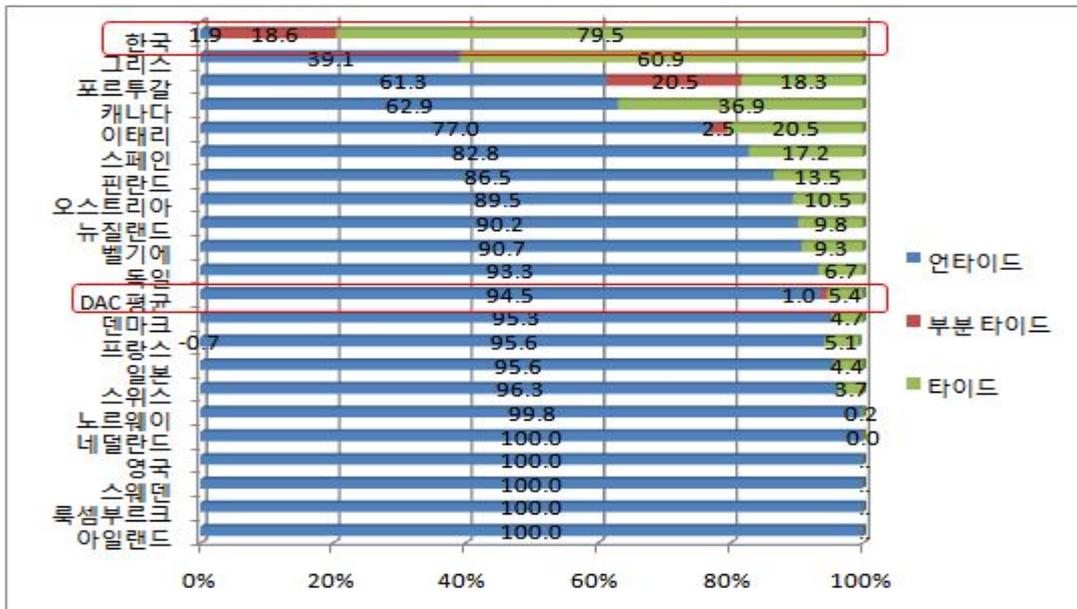
8) OECD의 연구에 따르면 타이드 원조는 구매되는 물자와 용역의 가격을 국제경쟁가격에 비해 평균적으로 15~30%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

9) Recommendation on Unty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10)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 한국의 경우 양자간 원조 중 타이드 원조가 79.5%, 부분 타이드가 18.6%이고, 언타이드 원조는 1.9%에 그쳐 거의 대부분의 원조가 타이드로 진행됨을 알 수 있음.
- DAC 평균인 94.5%뿐만 아니라 DAC 회원국 중 언타이드 원조 최하위권 그룹인 그리스의 39.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으로, 양자간 원조의 언타이드화를 중시하는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¹¹⁾
- 현재 한국은 원조 제공시 한국산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타이드 원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유상원조의 경우 실질상 100% 타이드 원조인 상황이어서, 2010년 DAC 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양자간 원조의 적극적인 언타이드화 추진이 필요함.

그림 3. 양자간 원조 중 언타이드 원조 비율(2006년 기준)



주: 약정액 기준, 기술협력 및 행정비용은 제외되었고 미국, 호주의 타이드 원조 비율은 보고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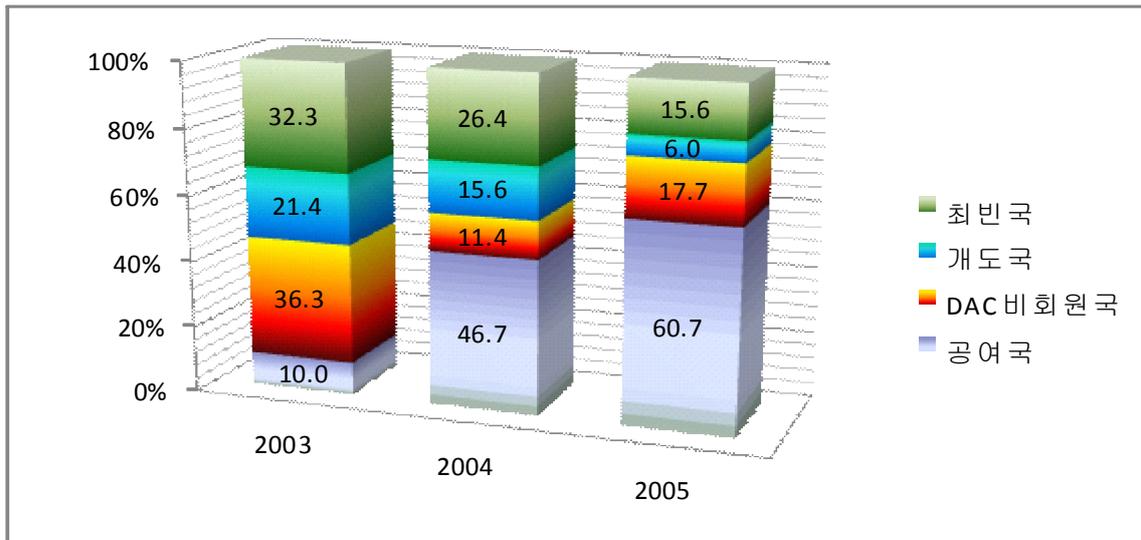
자료: OECD/DAC Internet Database.

- 정부차원에서 언타이드 원조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조달 시 자국기업의 수주율이 매우 높아 사실상의 타이드 원조(de facto tied aid)가 만연한 상황임.
- DAC의 계약수주 보고시스템에 따르면, 금액 기준으로 DAC회원 공여국 기업의 수주율(2005년)이 60.7%로 가장 높고, OECD 회원국이지만 DAC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의 수주율은 17.7%, 개도국 6%, 최빈국 15.6%임.

11) 정부는 2005년 11월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에서 유무상 원조 언타이드화의 점진적, 단계적 시행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원조조달 수주 능력의 제고 추진을 명시하였고, 2007년 7월 제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언타이드화 추진로드맵」을 2007년 하반기까지 확정하도록 추진할 것을 논의함.

-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화가 권고된 이후 공여국 기업의 수주율은 2003년의 경우 금액 기준 10%, 건수 기준 27.1%에 달했지만, 2005년에는 금액 60.7%, 건수 60.3%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언타이드화에도 불구하고 공여국 자국기업의 수주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수주계약에 있어서 타국가의 시장접근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그림 4. DAC 주요 회원국의 언타이드 원조계약 수주율



자료: OECD/DAC, "Implementing the 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2007 Progress Report to HLM", p.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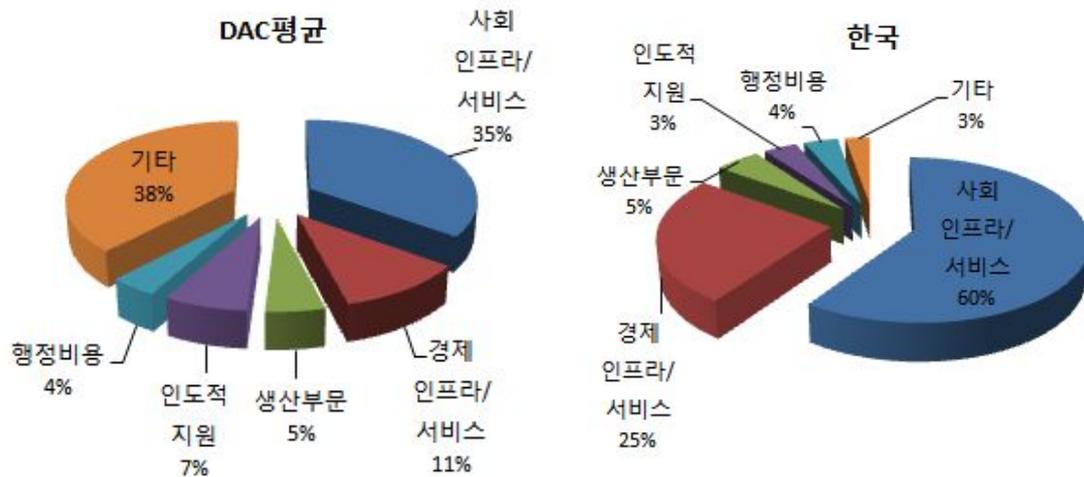
3. 최근 국제사회의 ODA 배분 구조

가. 협력분야별 배분

- DAC 회원국들은 교육, 보건, 인구 등의 사회인프라 부문에 전체 ODA의 약 35%를 지원하였으며, 운송, 통신, 에너지 등의 경제인프라 부문에는 11.4%를 지원함.
 - 생산부문에는 4.8%, 인도적 지원에는 6.9%로 미미한 지원율을 보임.
- 개별국가별로는 포르투갈(65.1%), 아일랜드(56.2%) 호주(53.2%)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가 주로 사회인프라 부문에 많은 지원을 하는 반면, 일본은 경제인프라 부문(26.2%)에 상대적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있음.

- 일본은 전통적으로 경제인프라 부문과 생산부문에 중점을 둔 유상원조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목적에 원조를 활용함.
- 한국의 경우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에 약 60%,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에 25%를 지원하여, DAC 평균과 비교할 때 이 두 분야에 보다 집중하는 양상을 보임.
- 1990년대까지는 교통·통신·에너지 등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위주로 지원하여 왔으나, 2000년대 들어서 교육·보건·환경 등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로 확대됨.
-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에서는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부문(1억 4,160만 달러)과 교육(1억 3,520만 달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에서는 교통 부문(9,950만 달러)과 통신(6,520만 달러)에 집중적으로 지원됨.

그림 5. DAC 회원국 평균·한국 부문별 원조 비율(20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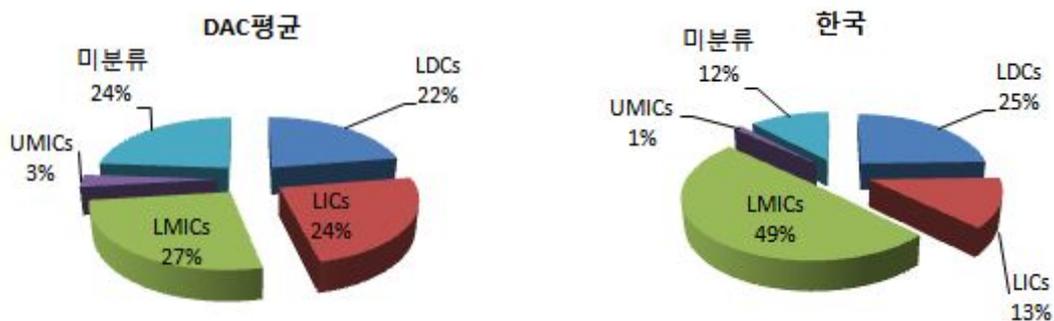
주: 총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OECD/DAC Internet Database.

나. 지역별·국별·소득수준별 배분

- DAC 회원국의 지역별 지원을 보면 사하라 이남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로 2006년 전체 ODA의 41%를 아프리카에 지원하였고, 아시아에 29%, 중남미에는 7%를 지원함.
- 2004년에서 2010년까지 대아프리카 원조의 2배 확대 목표에 따라, 2006년에는 434억 달러가 아프리카에 지원되었고, 그 중 399억 달러가 최빈국(LDCs)이 많은 사하라 이남지역에 집중됨.

- 이와 달리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 전체의 약 61%인 2억 2,760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아프리카에 13%, 유럽 7%를 지원하였음.
- 2006년 DAC 회원국의 주요 지원대상 국가는 나이지리아 108억 달러(그 중 94억 달러가 부채탕감), 이라크 85억 달러(그 중 33억 달러가 부채탕감) 순 이었고, 그 다음이 아프가니스탄, 수단, 카메룬, 콩고 순이었음.
- 한국의 경우 이라크에 전체 양자간 원조의 15.2%인 5,710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그 다음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였음.
- 소득수준¹²⁾으로 보면, DAC 회원국 평균의 경우 하위중소득국(LMICs)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타 저소득국(LICs), 최빈국(LDCs) 순이었음.
- 한국은 하위중소득국에 대한 비중이 49%로 양자간 원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여 기타 저소득국과 최빈국 등 소득이 낮은 국가에 대한 지원 비율이 DAC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한국은 무상원조에 있어서는 이라크, 인도네시아 등 하위중소득국 지원 비중이 높은 반면, 유상원조는 방글라데시, 라오스, 앙골라 등 최빈국(47%)과 스리랑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등 하위중소득국(41.3%)에 지원이 배분됨.

그림 6. DAC 회원국 평균 · 한국 소득수준별 양자간 원조 비율(20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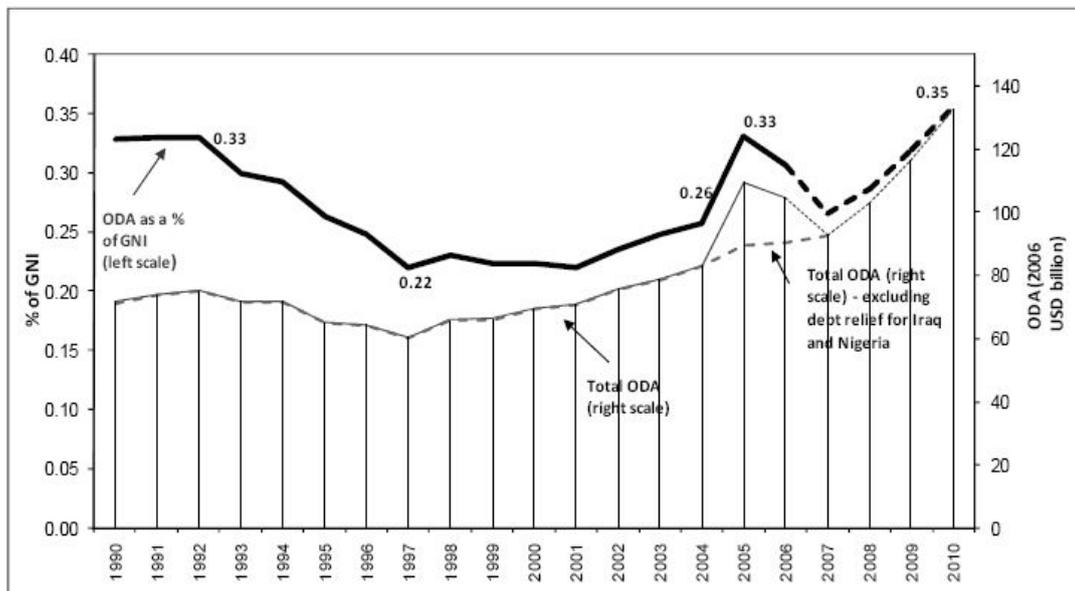
자료: OECD/DAC Internet Database;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자료(2007).

12) 최빈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1인당 GNI < 699달러, 기타 저소득국(LICs: Low-Income Countries) 1인당 GNI < 825달러, 하위중소득국(LMIC: Lower Middle-Income Countries) 1인당 GNI ≤ 3,255달러, 상위중소득국(UMICs: Upper Middle-Income Countries) 1인당 GNI ≥ 10,064달러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 2007년에는 나이지리아와 이라크에 대한 부채탕감 원조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원조 규모 역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원조확대를 위한 DAC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부채탕감이 아닌 다른 형태의 원조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DAC는 1990년에서 2006년 사이 ODA 변화 추이를 토대로 각 국가의 향후 계획에 따른 2007년~10년 ODA 규모 추정치를 산출한 결과, 2010년 DAC 회원국 전체 원조규모가 1,324억 달러, 평균 ODA/GNI 비율은 0.35%가 될 것으로 추정함.

그림 7. DAC 회원국 1990~2006년 ODA 변화 추이 및 2007년~10년 시뮬레이션



자료: OECD/DAC(2007), "Final ODA Flows in 2006", DAC Senior Level Meeting Room Document.

- 2005년 DAC 회원국 중 EU 국가들은 2010년까지 ODA/GNI 전체 비율의 0.56% 달성(국가별 0.51%)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기타 국가들도 2010년경까지의 목표를 발표함.
 - 호주는 2010~11년까지 ODA 규모를 43억 AUD(약 37억 5,000만 달러)수준으로 2배 확대, 일본은 2004년 기준으로 2005~09년간 100억 달러 확대를 목표로 함.
 - 노르웨이는 2006~09년 ODA/GNI 비율 1% 달성, 스위스는 2010년까지 0.4% 달성을 목표로 함.

표 2. DAC 회원국 2010년 ODA 규모 계획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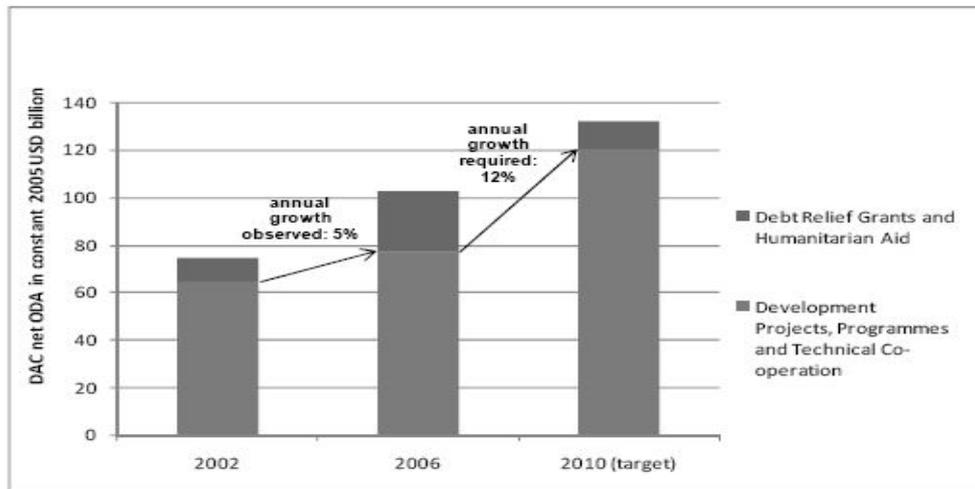
국가	2006년			추정 증가율	2010년				
	ODA 규모	GNI	ODA/GNI		ODA 규모	추정 GNI	ODA/GNI	2006년 대비 ODA 실질변화	
								규모	%
오스트리아	1,498	319,586	0.47%	2010년 0.51%	1,796	352,100	0.51%	297	20%
벨기에	1,978	395,971	0.50%	2010년 0.7%	3,025	432,082	0.70%	1,047	53%
덴마크	2,236	280,148	0.80%	최소 0.8%	2,423	302,912	0.80%	187	8%
핀란드	834	210,778	0.40%	2010 0.51%	1,183	231,900	0.51%	348	42%
프랑스	10,601	2,266,600	0.47%	2007년 0.42%, 2015년 0.7%	12,519	2,461,149	0.51%	1,919	18%
독일	10,435	2,930,802	0.36%	2010년 0.51%	16,355	3,206,871	0.51%	5,920	57%
그리스	424	245,109	0.17%	2010년 0.51%	1,402	274,946	0.51%	978	231%
아일랜드	1,022	188,888	0.54%	2010년 0.6%, 2012년 0.7%	1,294	215,703	0.60%	273	27%
이태리	3,641	1,846,855	0.20%	2010년 0.51%	10,163	1,992,755	0.51%	6,522	179%
룩셈부르크	291	32,760	0.89%	2009년 1%	376	37,576	1.00%	85	29%
네덜란드	5,452	676,089	0.81%	최소 0.8%	5,962	745,208	0.80%	510	9%
포르투갈	396	187,162	0.21%	2010년 0.51%	1,031	202,172	0.51%	635	160%
스페인	3,814	1,210,297	0.32%	2008년 0.5%, 2012년 0.7%	7,920	1,338,773	0.59%	4,107	108%
스웨덴	3,955	385,922	1.02%	1%	4,331	433,095	1.00%	376	10%
영국	12,459	2,423,548	0.51%	2007-08년 0.37%, 2010년 0.56%, 2013년 0.7%	14,856	2,652,796	0.56%	2,397	19%
DAC EU 회원국	59,035	13,600,514	0.43%	-	84,636	14,880,038	0.57%	25,600	43%
호주	2,123	719,553	0.30%	2015-16년 0.5%	2,934	798,480	0.37%	810	38%
캐나다	3,684	1,253,807	0.29%	-	4,162	1,377,726	0.30%	478	13%
일본	11,187	4,486,031	0.25%	2005-09년 100억 달러 확대	10,092	4,880,395	0.21%	-1,095	-10%
뉴질랜드	259	96,551	0.27%	2010년 0.33%	344	104,185	0.33%	85	33%
노르웨이	2,954	332,681	0.89%	2006-09년 1%	3,661	366,117	1%	707	24%
스위스	1,646	421,081	0.39%	2010년 0.4%	1,828	456,950	0.40%	181	11%
미국	23,532	13,259,900	0.18%	-	24,705	14,439,724	0.17%	1,173	5%
DAC 전체	104,421	34,170,118	0.31%	-	132,361	37,303,616	0.35%	27,940	27%

주: 위 자료는 추정치가 아니며 각 회원국의 공식발표 자료를 근거로 함. 단, 미국은 향후 ODA 규모에 대한 공식발표를 하지 않아 OECD/DAC 추정치를 따름.

자료: OECD/DAC(2007), "Final ODA Flows in 2006", DAC Senior Level Meeting Room Document.

- OECD/DAC에 따르면 2002년 몬테레이 국제 컨퍼런스에서 설정한 원조규모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개발 프로젝트·프로그램의 규모가 연평균 12% 수준으로 증가해야 함.
- 부채탕감, 인도적 지원이 앞으로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에 개발 프로젝트·프로그램과 기술 협력을 통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함.

그림 8. 2010년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개발 프로젝트 증가율 전망치



자료: OECD/DAC(2007), "Final ODA Flows in 2006", DAC Senior Level Meeting Room Document.

- 초기 목표를 설정한 2002년에서 2006년까지의 평균 5% 성장률을 감안할 때, 2010년까지는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인 연평균 12% 비율로 개발 프로젝트·프로그램, 기술협력이 확대되어야 초기 목표의 달성이 가능함.
- 한국은 2006년 기준 ODA/GNI가 0.05%에 불과하여 우리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포르투갈(0.21%), 그리스(0.17%)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조의 양적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야 함.
-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타이드 원조 비율로 DAC 회원국의 언타이드 수준과 큰 차이가 있는 상황임.
- OECD/DAC 가입 추진을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언타이드화와 함께, 우리 업체가 국제 원조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적으로도 아시아에 대한 공여 집중을 완화, 사하라 이남 등 아프리카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원조 증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2006년 3월을 기준으로 2008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3배 증대하고자 하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함.

- 무상원조에 있어서 최빈국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함.